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음 7월 28일) 제236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7일 서울 여의도 컨스틴트 호텔에서 열린 전북연구 국회의원 초청 도정현안 간담회에 송하진 도지사과 정세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 연구 국회의원들이 고항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내년 예산 확보 도-정치권 공조

도, 전북연구 국회의원 초청 도정현안 간담회

아시아스마트농생명 밸리 · 주력산업 체질강화 등 건의 새만금 내부개발 ·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등 반영도 피력

전북도는 '전북 대도약'을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에서 전북지역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을 초청해 도정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안규백 의원, 김병관 의원, 백재현 의원, 이화영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컨스틴트 호텔에서 2020년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예년에 비해 빠른 간담회가 성사된 것으로 이는 정치권과 협력이 가장 필

요한 국회 심의단계 직전에 역량을 최대한 결집, 국회단계 예산의 최대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예산확보 대응논리와 소관 상임위 지역 현안사업,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 등을 정치권과 함께 공유하고 협의의 장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도는 먼저 지역연구 국회의원에게 내년도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필수 예산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결박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 반영과

주력산업의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육성' 14억원,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조성' 50억원 등도 강조했다.

새만금 내부개발과 전라지역의식보급 등 역사문화재조명을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관련 예산반영도 피력했다.

도는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건의했다.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으로 논의 중인 전북 생생형 일자리 모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특히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탄소섬유 등 첨단소재에 지원과 및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 ▲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위해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특정국에 대한 소재 의존을 벗어나는 동시에 소재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전북의 역사를 바꿀 탄소산업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등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등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향후 예산심사가 본격 시작되는 9월에 앞서 정부예산안 과소·미반영된 중점 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별로 사업 역할분담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회단계 예산증액을 위해 중점 대응할 계획도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도, 추석 환경분야 특별대책 추진

생활쓰레기 등 즉각 수거 · 무단투기행위 단속 강화 대형마트 중심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일제 점검 등

전북도가 다가오는 추석명절에 대비해 오는 9월 2일부터 20일까지 쓰레기 관리를 비롯한 환경오염행위 중점감시 등의 환경분야 특별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기간(9.12~9.15)동안 발생하는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추석연휴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중점 추진한다.

우선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불원민원과 불법 투기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연휴기간 동안 도·시·군 처리상황반 및 시군별 이동형소방을 편성에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쓰레기 수거일 조정, 음식물 전용 수거함 확대 비치, 지역 주민대상 사전 홍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도로 정체 구간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무단투기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수거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명절 음식문화 개선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연휴에 대량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선 도로변, 관광지, 하천, 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환경미화원, 사회단

체, 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추석맞이 범도민대청소를 9월 2일부터 시군별로 진행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현수막, 전광판, 방송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추석명절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으로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2주간 '추석명절 과대포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주로 포장규격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양구, 벨트, 지갑 등), 1차식품(중합제품) 등에 대한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하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추석 연휴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단계)사전계도, 특별점검 및 순찰 강화(2단계)연휴기간 상황실 운영 및 순찰(3단계)기술지원 등의 단계별 특별 관리를 추진한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분야별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도민에게도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적당한 양의 명절음식 준비와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초록도시'

전주시민들은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초록도시'로 제시했다.

전주시는 27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조경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 방향성, 사업내용 등을 시민들과 논의하기 위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천만그루 정원都市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로부터 전주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생물의 다양성을 복원해 인

시민들, 원탁회의서 천만그루 정원도시 미래상 핵심 키워드로 '소통' · '공유' 도 각각 제시

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날 시민원탁회의는 전주가 지켜나가야 할 정원도시의 방향과 기본 원칙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토록 함으로써 시민중심의 진정한

정원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시민원탁회의는 참여한 시민과 전문가들이 각각 10명씩 테이블에 둘러앉아 △시민이 직접 선정하는 정원도시의 비전과 슬로건 △정원도



시의 분야별 과제 △천만그루정원도시 전주의 대표공간과 주변공간 등 3가지 주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정원도시 전주의 모습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참여한 시민들은 정원도시의 미래 모습을 담은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초록도시', 핵심 키워드로는 '소통'과 '공유'를 각각 제시했다.

또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는 향후 시민의 숲으로 변하게 될 전주종합경기장을 손꼽았다.

시는 이날 시민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수립될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 종합계획'의 기본토대로 삼고, 천만그루 정원도시 전주의 비전과 각종 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계획보다 아름다운 계획은 없고,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계획보다 강력한 계획은 없다"면서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아이들이 맑은 공기 속에서 맘껏 숨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